남산둘레길 걸으며 생명존중·환경보호도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2. 생명나눔 걷기명상 대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1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일대에서 '제14회 걷기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참가자 1000여 명은 4km를 걸으며 싱그러운 봄 내음을 만끽했다.

선명한 초록의 싱그러움과 봄 내음이 가득한 남산 일대가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는 1000여 명의 발길로 가득 찼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1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에서 '제14회 생명나눔 걷기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4km 둘레길을 걸으며 시원한 봄바람과 맑은 하늘을 만끽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은 생명나눔 걷기명상 축제는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해 자살 및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나눔실천본부가 2008년부터 개최해 온 대규모 행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다가 지난해 다시 재개했다. 특히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축제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걷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h) 활동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축제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이사 명신 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개그맨 엄용수 홍보대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이날 걷기대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발원했다. 일면 대종사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 남산 숲길을 따라 걷는 생명나눔 걷기대회가 벌써 14회째를 맞았다"고 감격을 전하고 "걷기명상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 소통과 배려, 공감의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명신 스님은 축사에서

5월 13일, 동국대서 개최
회원 학생 등 1000여 명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원
환경보호 위한 '플로깅'도
각종 체험부스들 인산인해

"화창한 봄날,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는 생명나눔 걷기명상이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열리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걷기명상을 함께 하는 모든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남산 길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용수 홍보대사는 "걸어야 달릴 수 있고, 달려야 날을 수 있다"면서 걷기 운동 예찬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걷기대회는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북측순환로 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의 힘찬 징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잡는 가족과 손잡고 걷는 노부부, 친구, 연인 등 걷기대회 동참자들은 남산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한번씩 둘레길에서 만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끌어주며 봄내음 가득한 남산 둘레길을 함께 넘었다. 청정 자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재활용은 분리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했다는 윤성한(60)씨는 "생명나눔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걷기대회를 회향한 후 참석자들은 축하공연을 함께 즐겼다.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축하공연과 함께 동국대 댄스동아리 두둠칫의 화려한 퍼포먼스, 한양라인댄스팀의 열정 무대가 이어졌다. 회향 전에는 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전기밥솥 등 푸짐한 경품 증정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른 아침부터 만해광장 일대 마련된 20여 개 부스에서는 꽃 압화, 태권도 격파,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이 이끄는 압화 체험 부스에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또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건강과 재미가 함께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날씨가 덥긴 했지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 걸으니 기분이 좋아지며 힐링도 됐다"면서 "많은 이들이 서로 양보하며 질서정연하게 함께 걸어준 덕분에 오늘 행사가 무탈하게 잘 끝났다"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산 숲길을 함께 걷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행사로 참가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성숙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를 통해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탄 이소원 가수를 홍보대사로, 이한규 주간불교 주간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위촉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또 ARS 060-703-1133 통화를 통해 소외이웃을 위한 기부를 독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징 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 남산으로 향했다.



정현숙 후원회장이 이끄는 마하무용단의 축하공연 등 신명나는 무대도 함께 열렸다.



20여 개 부스에서는 꽃 압화, 태권도 격파,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을 통해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탄 이소원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의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신심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천도재를 통해 부모·형제, 인연 있는 영가 분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바라며,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시 2023년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경기도 남양주시)
행 사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 바라춤, 나비춤 시연
접수안내 문 의 | 생명나눔 (02)734-8050, 불 암 사 (031)527-8345
현장접수 | 불암사
접 수 비 | 영가 한 분당 2만 원
입금계좌 | 농협 053-17-001346 (입금 후 전화바랍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사 장 일 면 / 후원회장 정명선화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신도회장 전보현자

제4차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총회
| 일시 |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 사무총장 최상균